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필수 학교-기업 같이 가야 균형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
건강보험제도 정상화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지방 균형발전 방안의 핵심으로 교육문제(학교)를 강조해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면서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며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다”고 설명했다.

또 “통의동 인수위 시절에 경제 6단체장을 초치해서 도시화 회의를 한 적 있다”며 당시 한 광역도 지사가 자기 지역에 땅을 많이 제공할 테니 기업이 공장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좋은 중고등학교나 지방대 등 교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 인재 상당수는 거기에 남을 수 있다”며 “쪽살아온 데 있는 것이 혜택과 비교우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으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본다”며 “옛날에 대구, 광주, 부산 등에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 국립대나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고 언급했다.

또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무를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선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를 꼽았다.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두고는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

움을 줬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며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이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료를 놓게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성 대상 범죄 대응에 대해 “장기 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무안공항, 미국·유럽도 간다

활주로 2800m→3160m로 연장
492억원 투입해 2025년 완공
대형 항공기 취항 해외노선 다각화

일본과 동남아만 가던 무안국제공항에서도 앞으로 미국과 유럽을 갈 수 있게 된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길이를 2800m에서 3160m로 연장하는 사업이 본격화한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오는 2026년부터는 저비용 항공기 외에도 중대형 항공기 취항이 가능해져 해외 노선이 다각화되는 등 무안 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게 것으로 보인다.

15일 무안군에 따르면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이 지난 14일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실시 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완료했다. 이 고시에 따라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와 피서리 일대 6만 8378㎡가 공항 부지로 추가 편입된다. 활주로 연장공사에는 492억원이 투입되며, 공사기간은 30개월이다.

활주로, 유도로, 착륙대가 360m씩 증가하며 기존 통신시설과 815호 지방도, 마을진입도, 농로 등이 신설 또는 이설된다. 또 지방도 등 도로 관련 공사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전남도에서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일괄 위탁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군과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들은 공항이 문을 연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활주로 연장을 건의해왔다. 현재의 활주로 길이로는 소형항공기 밖에 취항할 수 없어 노선이 아시아권역으로 제한되는데다, 화물운송도 사실상 어려운 반쪽짜리 국제공항이어서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무안공항에서 취항하는 항공기는 대부분

186인승, 189인승 등 소규모여서 일본이나 동남아만 오가는 실정이다. 무안공항은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5개 저비용 항공사가 일본, 베트남, 대만, 필리핀, 태국, 중국, 러시아(블라디보스톡), 몽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9개국을 대상으로 운항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태국,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등 4개국 노선만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아시아를 벗어나 해외 여행을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인천 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무안공항은 소규모 항공 위주의 취항일 뿐만 아니라 항공기 편수도 제한적인 상황이며, 여행 수요가 몰리는 휴가철에는 항공료가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비싸기까지 해 지역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우선 무안공항의 활주로를 연장되면 해외 노선이 다각화되면서 지역민 수요는 물론 인근 타지역의 항공 수요까지 유인할 수 있는 2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이 활성화될 경우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의 지리적 위치상 항공화물 운송이 활성화되면 공항 설립 당시의 목표인 국제물류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2023년 6월 공항 인근에 문을 여는 항공 특화 산업단지(MRO산단)와 어우러져 공항의 활성화는 물론 무안군 전체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MRO산단에는 항공기 정비, 물류, 부품 및 기내식 등을 담당하는 주요 업체들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2025년 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공사가 마무리되면 대형 항공기 취항과 장거리 국제공항으로서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주한미군, 북 미사일 감시·경보 ‘우주군’ 창설

오산기지에서 창설식
“우주작전 능력 한 단계 발전

주한미군사령부가 북한 미사일 감시와 경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주한미군은 14일 오후 경기 오산기지에서 주한 미우주군(SPACEFOR-KOR) 창설식을 개최했다. 2019년 말 창설된 미 우주군이 미국 본토 밖에 야전 구성군사령부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미국 인도태평양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이날 출범한 주한 미우주군은 우주군사령부의 야전 구성군사령부 기능을 한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주한 미우주군은 우주 기행,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며,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주한 미우주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경보 임무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전구(戰區)에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의 감시·경보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 지휘관으로 미 우주군 소속 조슈아 매캘리언 중령이 취임했다.

매캘리언 중령은 “주한 미우주군이 한반도 우주 작전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역내 위협이 확대되는 국제질서를 뒷받침하는 우주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체육회장 전갑수·전남체육회장 송진호 ▶2면
복스 - ‘날씨의 세계’ ▶16면
메시-음바페 ‘월드컵 우승’ 마지막 승부 ▶18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Benz Certified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 국내 수입처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 광역시 서구 상당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